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눈 뜰 수 없어요”



○83년 2월 자광불교교양대학 수계 및 수료식 후 졸업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다. 사미계를 받은 날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24살에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내 수행생활은 두 분 스님의 얘기를 베껴오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자기것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도 잃지 않았다 여기면 더크게 얻어”

이 깨우쳐 주시곤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상(相)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하면 어김없이 부처님 말씀을 적절히 예로 들어 일깨워 주시곤 하셨습니다.

계지요. 축농증이라는데 정도가 심해 숨을 입으로 쉴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해 버렸어요. 평소 한 번 보면 기억하던 것을 몇 번을 봐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다섯가지중 참선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의 근본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물질이 흔하다보니 공부는 뒷전이고 물질에 꼬달려요 풍족해도 아낄줄 알아야 수행인데...”

거나 앞으로 잃게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고, 지위를 잃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출가자들이 한암스님의 가르침처럼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보야 할 문제입니다.

한암스님께서서는 평소 부처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참선, 염불, 간경, 예식, 기림수호가 그것인데 다섯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지만 그도 어려운 한가지지만이라도 철저히 해야 양가득죄의 죄를 면

나를 출가인인든 속가인인든간에 이런 충고를 합니다. 물질에 꼬달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요즘 공부하는 뒷전이고 먹고 입는 것에 꼬달리는 스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인공을 확인하고 싶어요

스님의 주인공 법문을 듣고 환희를 느낍니다. 저는 가끔 누구인가? 주인공은 누구인가?하고 화두를 염하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태어난 것 자체가 화두라고 하십니다.

그와같이 주인공이라는 놈, 요놈이 뭘까한다면 그걸 관이라 하거나 참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훌쩍 뛰어 넘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물쭈물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애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또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칼로 찌! 쪼개서 직접 맛을 보라! 누구에게나 생명의 근본 불성이 있고 그렇기에 모든 걸 ‘포괄적인 하나’로 놓고 볼 때에 진심으로 거기에다 맡겨 놓으면 안 경계와 바깥 경계에 다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잘 놓습니까

스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 공에 놓고가라, 믿고 놓고가라 하시는데 어떤 마음가지이 진정으로 놓는 것인지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오로지 ‘주인공’하는 것이 참선 수행인지요?

Advertisement for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The Most Mysterious and Wonderful Medicine) featuring 山參 (Ginseng).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office.

Advertisement for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Causes and Remedies for Women's Diseases). Features a list of symptoms, a diagram of a woman's bod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office.